

중부새마을금고 이사장 3연임 제한 회피 '꼼수'?

임기 종료 6개월 앞두고 사퇴 17일 보선 '대리인' 출마 의혹 "문제 없어...차기출마 가능성"

자산 1700억원을 관리하는 순천지역 새마을금고가 이사장의 중도 사퇴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3연임에 성공한 전 이사장이 임기 종료 6개월을 앞두고 돌연 사퇴한 것을 두고, 일부 조합원들은 3연임 제한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전 이사장이 90세 넘는 고령의 '대리인'을 이사장으로 내세워 잔여 임기를 채우게 한 뒤 다시 선거에 출마해 장기 집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5일 순천중부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전임 A 이사장이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 오는 17일 보궐선거에서 B이사와 C이사가 이사장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됐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 이사장 A씨는 지난 2012년 2월 첫 당선 이후 2020년 선거까지 3선에 성공한 바 있다. 그가 지난 달 돌연 건강상의 문제로 사퇴하면서 조합원들은 "3선 연임 제한규정을 악용하려는 꼼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방자치법과 같이 3선 연임 제한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일부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3연임을 하면서 중간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남은 기간 대리인을 당선시켰다가 또다시 당선돼 이사장직을 이어가는 편법을 쓰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전임 이사장 A씨 역시 중도에 그만 뒀기 때문에 3선 연임 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다. 추후 이사장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

A씨 역시 차기 이사장 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전국적으로 100명 이상이 이사장직을 도중에 그만 둔 후다



순천중부새마을금고

시 말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며 "출마는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생각해 볼 문제이며 차기 선거에 나올지 여부는 지금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B이사는 A씨의 대리인이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B이사는 "젊은이 못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23년 동안 새마을금고 이사를 지내는 등 경험이 많다"며 "전임 이사장 측근이라는 소문도 들었지만 남의 말을 듣고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순천중부새마을금고 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이 임기 만료 6개월 전 사퇴할 경우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있다.

한편 중부새마을금고는 회원 1만여명에 대의원은 123명이다. 이사장 선거는 대의원들이 투표해 결정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이사장은 직원 인사권과 법인 카드 제공, 연봉 1억5000만원을 받는다.

글·사진=순천 배서준 기자

정원박람회 개막 신춘음악회 순천시, 26일 문예회관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개막을 축하하는 신춘음악회를 오는 26일 오후 5시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원에서 만나는 그대의 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는 국내 대표 여성 지휘자 여자경이 지휘하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정성급 소프라노 김순영, 테너 이범주의 협연이 어우러지는 공연으로 구성됐다.

공연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봄의 소리 왈츠를 시작으로 오페라 아리아, 한국 가곡, 인기 있는 오케스트라 음악을 선보이며 여자경 지휘자가 연주곡에 해설을 덧붙여 관객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무대로 펼쳐진다.

관람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으로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또는 순천문화회관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문의는 순천문화예술회관(061-749-8614). 순천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봄의 활력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무대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음악 애호가들에게 교향악의 진수를 만끽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화상병 유입확산방지 총력 순천시, 사과·배농가 대상

순천시는 사과, 배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화상병의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순천시는 최근 과수화상병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해 사과와 배 재배 194농가(133ha)에 5000만원을 지원했다.

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으로 발병하면 잎, 줄기, 꽃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 말라죽는다. 발생 과원은 물론 인근 반경 100m 이내 기주식물을 폐원해야 해 사과, 배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시는 과수의 개화 상황을 관찰한 결과 낙안배 주산지의 1차방제 적기를 쫓는 인편이 벌어지고 꽃술이 보일 때인 오는 15일로 보고 농가에 화상병 방제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2차 방제적기는 개화 초기부터 개화 50%일 때이며 3차 방제적기는 2차 방제와 최소 5-7일 이상 간격을 두고 꽃이 80% 개화한 후 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청년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순천시

순천시는 지난해 4월 청년기업 교육, 창업 공간 지원, 제품 구매 및 판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청년기업 육성 조례는 순천시 청년창업의 특징과 구조를 분석하고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향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화 계획을 마련하여 청년 창업에 도움을 주는 조례다.

시는 3월 중 청년기업 육성 계획을 함께 수립할 청년기업위원회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청년기업위원회는 현장을 잘 아는 청년기업가, 청년기업 운영경험이 풍부한 관내 기업가, 청년기업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계자로 구성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청년사업자들이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요에 맞춘 정책을 통해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최근 사과, 배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순천시 제공

'봉화언덕빵' 보급... 지역 브랜드 만들기 총력

제과점·베이커리 업계 빵틀 제공

순천시는 순천시소상공인연합회와 대한제과협회 순천시지부가 공동 개발한 지역브랜드 상품 '봉화언덕빵' 보급을 위해 지역 제과점업 및 베이커리 업종에 빵틀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사업장이 순천시에 있는 제과제빵 취급 업체 중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다. 신규 창업한 청년 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청년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운영 기간에 관



계없이 지원한다.

'봉화언덕빵' 빵틀 지원 사업에 신청한 업체는 빵 레시피 및 제조·판매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의무교육 이수를

확인한 후 빵틀을 보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며 순천시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순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순천시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061-752-8590-1)로 문의하면 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속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제품이 개발·확산되고 지역 관광상품으로 자리잡는다면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여수·광양도 힘 모은다

입장권 2억 구매 '여순광' 상생 노관규 시장 '남해안벨트 허브'

여수시, 광양시가 박람회 입장권 구입을 통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에 나서면서 '여순광 지자체' 상생을 다졌다.

15일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여수·순천·광양시 행

정협의회 제35차 정기회의에서 2억 1000만원 상당의 입장권 사전구매 증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여수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박람회 벤치마킹 등을 위해 3000매 가량을 사전 구매했으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여수시사회복지시설연합회에서는 2000매를 구매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배포했다.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도 4000매를 구매하며 여수 전역에 박람회 열기

를 높이고 있다.

광양시 또한 1억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를 통해 이웃 지자체인 순천에서 열리는 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두 지자체는 박람회 전담 TF팀을 구성해 2023정원박람회 방문객 견인에 나선다.

이사를 맡은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만의 성공이 아닌 여수 광양과 남해안벨트 허브이자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친절서비스 등 위생교육 순천시, 음식점 영업자 대상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4일 순천만국제제습지원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해 식중독예방교육, 친절서비스, 영업자 준수 사항 등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별강사로 초빙된 노관규 순천시장은 2023정원박람회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박람회에 찾아와 관광객을 문화행사 등으로 도심으로 유입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음식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3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순천을 찾는 방문객을 맞는 외식업소 종사자들이 순천시 홍보대사임을 잊지 말고 맛, 친절, 위생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순천시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식품위생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주말 영업·조식 제공·박람회방문 당일티켓 소지자 10% 할인, 휠체어나 유모차가 입장하기 편하도록 무장애 시설 지원 등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